



2014 PUBLIC EXAMINATION

Heritage Korean

Section 1: Responding to texts

Transcript of Listening Texts

- Text 1
- Text 2
- Text 3A

Familiarisation Text

MALE : 김선생님, 안녕하세요?

FEMALE : 네, 이선생님 오랜만이에요.

MALE : 그 동안 잘 지내셨어요?

FEMALE : 네, 별 일 없이 잘 지냈어요

Section 1: Responding to texts

Question 1, Text 1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상담가 이지민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 헤리티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주된 요인중의 하나가 교육입니다. 한국 부모님들은 교육에 유별나게 관심이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높은 점수를 받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업과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좋은 성적이 꼭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공부를 강요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과 자식간의 관계가 나빠지기 쉽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반항하게되고 부모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점점 더 나빠집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호주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합니다. 대학은 청소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진로중 하나일 뿐입니다. 교육은 훌륭한 직업과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가지 직업 또한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교육과 성공에 대해서 좀 더 넓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 주셔야 합니다.

Question 2, Text 2

학생기자: 12학년 담당 선생님께서도 매우 바쁘시죠. 이렇게 인터뷰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무엇이든 도와주고 싶어요.

학생기자: 요즘 저희들은 21세기에 글로벌시민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시민이 되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어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여러분이 과목을 고를 때 적어도 외국어 하나는 선택하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나중에 세계무대에서 일하려면 정말 중요해요. 외국어 공부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학생기자: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저는 지금 헤리티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고 대학에서는 프랑스어를 공부하려고 해요.

선생님: 잘했어요. 여러분은 언어공부와 함께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을 또한 키워야 해요. 여러분이 책을 읽고 다양한 음식과 영화를 통해 능력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기회와 시간이 된다면 여행을 하면 더 좋겠군요.

학생기자: 잘됐네요. 저는 이번 방학에 한국에 가려고 해요.

선생님: 글로벌시대에 또 한가지 필요한 것은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디베이팅클럽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어요.

학생기자: 좋은 생각이시네요.

선생님: 끝으로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IT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제안한 네 가지 방법을 받아들인다면 적어도 우물안의 개구리 처럼은 안 될 것입니다.

학생기자: 감사합니다.

Question 3, Text 3A

인호: 지난 주 추석은 잘 지냈니?

수미: 추석? 우리 집은 추석이라고 특별히 하는 게 없어. 너희는 추석을 항상 지내니?

인호: 응, 우리는 추석을 꼭 지내려고 부모님께서 노력을 하시는 편인데, 호주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아. 그래도 올해는 다행히 토요일이 추석날이라 식구들이 같이 시간을 보내기가 참 좋았어. 한국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전화도 했어.

수미: 나는 정말 이해가 안가~. 호주에 살면서 왜 추석을 꼭 지내려고 하는지 말이야.

인호: 그래도 한국에서 큰 명절 중에 하나가 추석이잖아. 호주에 살기는 하지만 추석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차례도 지내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니? 맛있는 송편도 먹고 말이야.

수미: 너희는 송편까지 만들어 먹니? 그럴 시간이 어디에 있어?

인호: 우리 엄마는 시간이 없으셔서 직접 만들지는 못하셔. 그래서, 한국식품점에서 사다 먹어. 직접 만들면 재미도 있을 텐데 좀 아쉽기는 해. 엄마가 내년에는 송편을 집에서 만들어 보자고 하셨어. 너도 나랑 같이 만들어 볼래?

수미: 글썄, 잘 모르겠다. 생각해볼게.